



천국의 전화기

안지원

흔히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고 합니다. 이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바라는 것만 일적으로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, 잠시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 보아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,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?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며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'천국의 전화기'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. 물론 진짜로 천국에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, 작품을 만들며 아이들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뜻 깊은 교리 시간이 될 것입니다.



준비물 : 흰 골판지상자, 매직펜, 숫자 스티커와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, A4 용지, 색종이, 벨크로 테이프(찍찍이 테이프), 자, 칼, 가위, 풀



① 골판지에 가로 6cm, 세로 20cm의 직사각형 모양을 그립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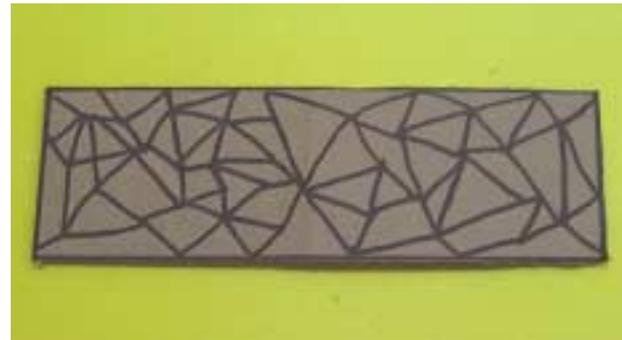
② 칼로 자릅니다.



③ 자른 직사각형을 반으로 접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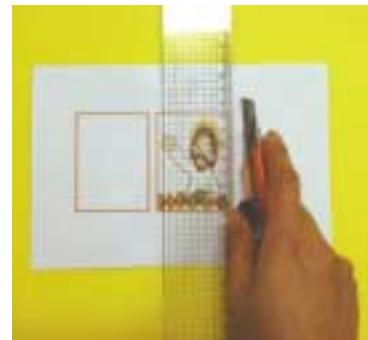
④ ③의 바깥면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점을 여러 개 찍습니다.



⑤ 골판지를 편 후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 등 다양한 도형을 그립니다.



⑥ 다양한 색깔의 매직펜으로 칠합니다.



⑦ A4 용지에 가로 5cm, 세로 7cm의 직사각형을 두 개 그려 그중 하나에는 예수님 얼굴을 그립니다. 사진처럼 기존에 있는 예수님 도안을 출력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좋습니다.



⑧ ⑦을 잘라 사진처럼 ⑥의 안쪽 면에 붙입니다.



⑨ 숫자 스티커를 이용해 핸드폰의 숫자판을 꾸며줍니다.



⑩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를 이용해 나머지 부분을 꾸며 준 뒤, 벨크로 테이프를 위아래 맞닿는 위치에 붙입니다.



⑪ 사진처럼 A4 용지나 색종이를 적당한 크기로 오려 핸드폰 겉면에 붙여 액정을 표현해 줍니다.

tip. 빨대를 붙여 안테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



안지원_사비나
천호 유치원 교사, 고덕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교구 초등부 9지구 교사연합회 월례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.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안 교사는, 가르치며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.